

TV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은 내 며느리>
9 00 신문이야기 들쭉구 소+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라>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30 SBS 생방송 50 KBC 생활뉴스
11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KBS 네트워크 특선 유직토코소 가요1번지 55 안녕 우리말	00 1대100(재)	00 찾아라 맛있는 TV 스페셜	10 닥터 365(재) 15 글로벌 문화유산 50 SBS 12 뉴스
12 40 채널A 뉴스 특보	00 KBS 뉴스 12	00 사람과 사람들(재)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45 닥터 365 55 특목보형설계(재)
1 5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세계가 품은 한국의 미(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생생정보 스페셜	20 문화사색(재)	
2	00 청년 대한민국 꿈꾸라, 도전하라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05 내꺼야 풀록 30 구리가식사교실	00 영재발굴단(재)
3 00 이연경의 직언직설	00 ABU 국제공동제작 CARE5 학교가는 길 55 튜브생활제	05 후투스 읽어버린 숲(재) 30 자동차부품상 위키	00 MBC 뉴스 10 독? 뭘? 키즈스쿨 55 꼬마돌도	00 3시, 뉴스브리핑
4 30 레도나마	00 오늘의 경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TV유치원 30 아육정PD의 요리인류 키친(재) 40 동물의 세계	2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스페셜 30 토닥토닥 꼬꼬
5 50 김승권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특공대(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2015 프라야구 골든클럽 시상식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1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나는 몸신이다(재)	00 KBS 뉴스7 30 시사현장 맥 55 집중인터뷰 이사람	50 일일드라마 <다 잘될거야>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20 일일드라마 <돌아온 황금복>	10 시사타지 때때때때 20 일일드라마 <돌아온 황금복>
8 20 갈데까지 가보자(재)	25 우리집 끝단지	30 2TV 저녁 생생정보2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스타!킹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뉴스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월화 드라마 <오 마이 비너스>	00 월화특별기획 <화려한 유혹>	00 청사 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
11 00 총격 실화극 싸인(재)	00 KBS 뉴스라인 40 창의 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10 우리동네 예능	10 PD수첩	15 불타는 청춘
12 20 아내가 불났다(재)	35 독립영화관 <소중한 날의 꿈>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 토론	35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09:40 토크쇼 부모 <이슈 N 램>	15:00 꼬마 철학자 추고	19:50 극한직업
05:30 건강안심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꼬마기사 마이코	20:40 다큐 오늘
05:40 성공 인생후반전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30 세계사 시간여행	20:50 세계테마기행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1:10 다큐 오늘	15:40 모피와 친구들	<자연을 담은 사람들, 라오스>
07:00 레이디 버그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50 한국기행 <배낭하나 돌러메고>	21:30 한국기행
07:30 뽀롱뽀롱 뽀로로	<행복한 열대, 마다가스카르>	16:30 코코코 다코(재)	21:50 EBS 다큐프라임 <교육대기행 시험>
07:45 로보카 폴리	12:00 EBS 정오 뉴스	16:45 당동당 유치원1~3(재)	22:4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08:00 당동당 유치원1	12:10 EBS 스페이스 공감2	17:30 뽀롱뽀롱 뽀로로	23:35 프래임 X
08:10 Why-최고다 호기심딱지	13:05 지식채널e	17:45 로보카 폴리	24:05 지식채널e(재)
08:20 당동당 유치원2	13:10 갤럭시 프로젝트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3	24:10 EBS 인문학 특강
08:30 두다다공(재)	13:40 출거운 수학 EBS MATH	18:45 신동방송 공룡 슈퍼	25:00 세계 명작극장
08:40 당동당 유치원3	13:50 오스카의 오아시스	18:55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4	<빙 댄스 왕관>
08:45 코코코 다코	14:00 허풍선이 과학쇼	19:00 레이디 버그(재)	
09:00 크레머의 창의력 팽팡	14:30 두부바바 눈보리	19:30 EBS뉴스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알파개념>	12:15 뉴 탐스런 <윤리와 사상>(재)
00:50 " 고교 Basic Grammar-junior	13:05 수능특강light <영어-독해>
01:40 " <문학-알파개념>	14:00 수능열기 <수학(가형)>(재)
02:30 " <미적분 I>	14:50 수능 길잡이 <국어-독사>(재)
03:20 " <수학 I>	15:40 " <영어 독해-구문>(재)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 <미적분 I>	16:30 " <영어-듣기>(재)
05:00 뉴탐스런 <물리>	17:20 2017 수능개념
06:00 " <생명과과학>	(체인지 수학 II)
06:50 " <동아시아사>	18:10 " <화물과 통계>
07:40 " <윤리와 사상>	19:10 뉴탐스런 <동아시아사>(재)
08:30 수능열기 <수학(가형)>	20:00 EBS스타강사 특강
09:20 수능 길잡이 <국어-독사>	20:50 2017 수능개념
10:10 " <영어 독해-구문>	(물리 I 에 물들다)
11:00 " <영어-듣기>	21:40 " <해석 공식>
12:10 5분과문 - 화학 I	22:3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EBS플러스2

07:00 물류관리사 시험대비강좌	15:50 "	<수학 4-2>
07:3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강좌	16:20 "	<수학 5-2>
08:30 A.T자격 시험대비강좌	16:50 "	<수학 6-2>
09:00 출거운 수학 EBS MATH	17:20 초등과학 개념잡기	
09:10 TV총학 <국어(1)(2)>	17:50 다큐 오늘	
09:50 "	<수학(1상)>	18:00 TV총학 <국어(5)(6)>
10:30 "	<역사 1>	18:40 "
11:10 "	<국어(3)(4)>	19:20 필독중학 세계사
11:50 "	<수학 2(상)>	20:00 EBS 기획특강
12:30 실천취업가이드	20:50 EBS 기획리포트	
13:00 데일리리 서술형 수학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3:10 등업산공 <수학(1하)>	22:00 등업산공 <과학2(하)>	
13:50 "	<과학(1하)>	22:40 "
14:30 "	<수학2(하)>	23:20 필독중학 <사회1(하)>
15:20 만점왕 <수학 3-2>	24:00 경기초 중학 <수학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8일(음 10월 27일 戊午)

子	48년생 더불어 논의한다면 훨씬 나은 답을 얻을 수 있다. 60년생 가벼운 언행은 공든 탑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 72년생 합리적으로 수용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84년생 천천히 실행되어야만 무리가 따르지 않으리라. 행운의 숫자 : 77, 05	午	42년생 대상의 선정에 신경 써라. 54년생 화를 자초할 수 있는 우는 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66년생 관련 사항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78년생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가 되었느니라. 행운의 숫자 : 11, 28
丑	49년생 침착하게 행한다면 오히려 더 버틸리라. 61년생 선행 조건부터 확실히 짚어야 쉽게 풀리는 문제이다. 73년생 인식을 달리한다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85년생 나가는 것이 많을 수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49, 14	未	43년생 결과적으로 남 좋은 일만 하는 꼴이 될 수 있다. 55년생 주어진다는 어긋났지만 최소한의 결실은 있을 것이다. 67년생 주의해야 할 것은 형제자매 실마리 하나니라. 79년생 배려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행운의 숫자 : 29, 61
寅	38년생 불편해 왔던 것이 두드러져서 난감하겠다. 50년생 고생해 놓고 남 좋은 일만 시킨다. 62년생 일관된 소신이 있다면 목적 달성을 하리라. 74년생 약진하는 길목에 들어서고 있느니라. 86년생 미끄러지지듯이 나아가라. 행운의 숫자 : 15, 87	申	44년생 상태가 계속된다면 총통하게 되어 있다. 56년생 판세를 확실히 뒤집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68년생 일관성 있는 진행만이 결실을 이룰 것이다. 80년생 내키지 않으면 재빨리 변경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54, 92
卯	39년생 희망 사항을 어렵사리 이루어 가리라. 51년생 휘둘릴 수도 있느니라. 63년생 완급 조절을 잘 해야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 75년생 작은 것을 아끼려다가 매우 소중함을 잃을 수 있다. 87년생 빨리 봉합하고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16, 25	酉	45년생 제3자의 말에 따라 좌우될 필요는 전혀 없다. 57년생 너무 치우치지 않았는지 살펴 볼 일이다. 69년생 주관을 버리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81년생 두드러져서 크게 주목받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1, 76
辰	40년생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변화의 폭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52년생 과실이 주렁주렁 열려 있으니 풍요로울 것이다. 64년생 직접 실행하는 것이 백번 낫다. 76년생 행하다 보면 다른 일에 소홀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7, 03	戌	46년생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낫다. 58년생 전혀 예상치 못 한 곳에서 물고를 들 수도 있다. 70년생 의외의 재물이 상당히 생길 수도 있다. 82년생 공들여 왔던 일이 있다면 협조를 얻어 목표에 진입하겠다. 행운의 숫자 : 86, 67
巳	41년생 기본적인 바탕이 좋아야 추진되는 행군이 건설해지는 법이다. 53년생 일관된 소신으로 제대로 밀어붙이면 승산은 충분히 있느니라. 65년생 구체적이고 실행력이 있어야 유용하다. 77년생 생방식은 금물임을 알라. 행운의 숫자 : 34, 38	亥	47년생 괴로움이 사라지면서 평온함이 깃든다. 59년생 관심을 가져 왔던 바에 효과가 드러나리라. 71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용통함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라. 83년생 세 번 생각하고 말한다면 실수하지 않으리라. 행운의 숫자 : 43, 9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 ☎010-9790-8237

MC 김원희, 제일 잘나가~

‘자기야’ ‘살림 9단...’ 등 4개 프로 활약

“시청자 입장 진행 좋게 봐준 거죠”

배우에서 출발해 최근 몇 년은 여성 MC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김원희(43)를 만났다.

“제가 진행의 스킬도 없고 진행을 매끄럽게 하지도 못해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말할 줄도 모르구요.”

김원희는 지금 무려 4개 프로의 MC를 맡고 있다. 3개는 단독 MC, 1개는 메인 MC다.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교양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여성 단독 MC의 ‘씨가 마른’ 방송가에서 전문 진행자도, 개그맨 출신도 아닌 김원희가 지금 가장 잘나가는 여성 MC가 된 것이다.

“배우로 시작했지만 MC를 병행한 지도 어느새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솔직히 일이 얼마나 치열하고 귀한 일인지 는 오랫동안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현실을 깨닫고 는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겁이 났다고 말하지는 것은 없지만 책임감은 더 강해졌죠. 그리고 이 일의 소중함에 더 감사하게 됐어요.”

일단 SBS TV 예능 ‘자기야-백년손님’을 만 6년 넘게 진행하며 지난 10월 300회를 넘겼고, TV조선에서 정보프로그램 ‘살림 9단의 만물상’을 2년 넘게 진행 중이다. 여세를 몰아 지난 9월부터 TV조선 유아 관찰 프로그램 ‘난생처음’을 맡았고, 내년 1월부터 방송되는 TV조선 메이크오버 프로그램 ‘아름다운 당신’도 현재 녹화를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2009년 ‘스타 부부쇼 자기야’라는 이름으로 첫선을 보인 ‘자기야’에서는 김원희가 김용만, 김성주, 최양락, 신현준 등의 남자 MC들과 호흡을 맞추다가 지난해 여름부터 단독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김원희는 “제가 결코 최고도 최선도 아니다. 그걸 바란다고 되는 일도 아니다”라며 “다만 나만의 방식과 스타일은 보여주는 것 같다. 40대 중반으로 가는 여성의 모습과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진짜 궁금하고 재미있어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진행자로서 한 사람의 게스트를 상대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이 제게 걸어들어오는 것이고 살아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줘야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일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그건 MC로서보다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게스트와 대화를 나누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나와 아무리 다른 사람이어도 그 사람을 인정하고 이야기를 듣고, 그의 삶을 인정하면 모든 이야기가 너무 공명해요. 그런 제 공명증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해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는 아무 프로그램이나 맡지 않는다. 평소 남들 몰래 봉사활동을 숨겨처럼 실천해오고 있는 김원희는 특히 가족과 여성, 아이들의 문제에 관심이 많다. 지난해 범무부 인권총조사로 위촉돼 인권에 대한 홍보영상을 촬영한 것도 같은 맥락.

“어릴 때는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잠만 자고 나가는 바쁜 생활을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정(그는 15년간 지도지순한 연예 끝에 2005년 결혼했다)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새록새록 느끼고 있어요. ‘자기야’의 경우는 부부토코에서 시작해 지금은 장



모와 사위의 이야기를 조망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이 자신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드라마나 시트콤보다 재미있어요. ‘만물상’의 경우는 처음에는 ‘내가 정보 프로그램?’ 싶었지만 해보니까 주부로서 살림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게 흥미롭고 뿌듯하더라고요.”

4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김원희는 특히 지난 한달 눈코 뜰 새 없이 바빠다. 그가 속한 연예인 봉사단체 김기니스트리 가 4년째 진행하는 아이티 심장병 어린이 환자들의 수술 지원 봉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12명의 환아와 부모 등 30명이 입국했는데, 이 단체의 특성상 연예인들이 직접 환아들의 입국부터 입원, 퇴원까지 다 돌보고 후원했다. 그는 한달간 매일 병원으로 출퇴근을 했다.

요즘 어린 세대에게는 김원희가 유머러스한 MC로만 보였지만 사실 그는 ‘인연왕후’ 출신이다. 1992년 MBC 2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서울의 달’ ‘이 여자가 사는 법’ ‘부자유전’ 등을 거치며 정상의 인기를 누리며 배우다.

“솔직히 시간이 안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연기를 하려면 지금 하는 많은 일을 그만둬야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영원히 배우이고 언제나 연기는 할 겁니다. 다만, 지금은 지금 하는 일들이 좋고 이미 너무 바빠요.(웃음)”

그는 “20년 전쯤 드라마 촬영장으로 꾸준히 찾아와서 내게 MC를 하라고 권유했던 예능극 PD분들이 고맙다”며 웃었다.

문 근 영

배우로서 욕심 생겨 30대가 더 기대돼요

“‘국민 여동생’ 이미지 이젠 조금씩 놓아야죠”



“찬란하고 빛났어야 할 20대를 움츠려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역할이 있어도 ‘문근영이 조연만 해? 한물갔나?’라고 생각할까봐 못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보든 말든 신경쓰지 않아요. 또 진짜로 한물 간거면 어때요, 전 이제 서른이고 한번쯤 더 기회가 올텐데요.”

7일 오전 서울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문근영은 어떤 겹데기를 깨고 나온 듯한 모습이었다.

문근영은 최근 종영한 SBS TV ‘마을-아차아라의 비밀’에서 주인공 한소은 역을 맡아 열연했다. 소은은 어릴 적 헤어진 언니의 흔적을 찾아 아차아라 마을의 비밀을 파헤치게 되는 역할.

주인공이지만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기보다 시청자들을 사건으로 안내하는 화자(話者) 역할을 했다.

보통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사건 해결의 중심에 서지도, 캐릭터가 돋보이지도 않은 것이 아쉬지는 않았을까.

문근영은 “‘문근영이 맡은 캐릭터인데 뭔가 있겠지’라는 기대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데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저는 그냥 내레이터예요. 전 그냥 전달하는 게 목적이예요’라고 생각하면서 저 나름대로 답답해했다”며 웃었다.

“마을’은 마지막회까지 시청자들이 하려구 범인 찾기가 몰입하게 했지만 결국은 누가 죽었느냐 보다 ‘왜’ 죽었느냐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문근영은 “개인적으로는 16회까지 (굉장히 집요한) 소은의 행동을 대한 설명이나 개연성이 잘 안 드러나서 속상하기도 했다”며 “16회를 통해 가족을 찾고, 그 가족이 왜 죽었는지를 밝

히는 게 소은에게는 일종의 사명감이었던 사실이 잘 정리돼 마음에 들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2000년 방송된 ‘가을동화’에서 ‘국민 여동생’의 칭호를 얻은 지 15년. 문근영은 ‘국민 여동생’이라는 타이틀은 부담이면서 지키고 싶은 것이었다고 털어놓았다.

“다른 ‘국민 여동생’들이 많이 생긴 지금 생각하면 ‘국민’이라는 단어가 붙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어요. 예전에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싫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키고 싶은 것이었고요. 그렇다보니 작품을 선택할 때 신경써야 할 게 많았고요. 최근 출연한 영화 ‘사도’나 ‘마을’을 통해 단순한 ‘국민 여동생’ 이미지의 탈피가 아니라 문근영이라는 배우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딜가나 ‘국민 여동생’ 이미지를 어떻게 벗을 건지를 묻는 질문을 받아야 했던 문근영은 “예전엔 확실히 가진걸 꼭 쥐고 지키려고 했다면 이제는 조금씩 놓아지기도 한다”며 “작년 즈음 ‘오춘기’를 ‘답답하게’ 겪으면서 힘들었는데 영화 ‘사도’를 하면서 이준의 감독님, 송강호 선배님, 전혜진 선배님과 술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생각이 좀 정리가 됐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지금도 과거 그 어느때 보다 욕심이 많은 시기”라고 말한 문근영은 “20대의 저는 배우로도, 연예인으로도, 여자로도 많이 움츠려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 많이 깨졌다. 그래서 20대 때 빛내지 못했던 수많은 불꽃을 ‘평 평 평’ 터트릴 생각에 30대가 기대된다”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다부지게 말했다.